

(24-2) 국제무역현장실무 수업 참가 수기

202126615 교통시스템공학과 조민기

새로운 도전, 그리고 설렘

교통시스템공학과 2학년인 저에게 '국제무역현장실무' 수업은 미지의 영역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수업을 신청할 때 까지만 해도 무역이라고 하면 그저 막연히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업에 참여해보니, 세상을 움직이는 다양한 토피바퀴 중 하나가 바로 무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무역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특히, 국제무역현장실무 수업은 실제 기업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스트두잇' 팀을 구성해 닭가슴살 칩과 인삼 추출물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낯선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팀워크, 그리고 소통의 기술

매주 목요일 저녁, 정기 회의는 팀워크를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주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점차 팀으로서 하나 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복잡한 교통 시스템 속에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효율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팀 또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와 베트남 시장 조사를 담당하면서 팀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면서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구글 시트를 통해 바이어 발굴 현황을 공유하고, 서로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어려움을 겪는 팀원을 도와가며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팀워크가 무엇인지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값진 경험, 그리고 극복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가장 값진 경험은 바로 바이어 발굴입니다. 수많은 바이어에게 메일을 보내고, 회신을 기다리는 과정은 마치 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막막하고 지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중국과 베트남 바이어로부터 회신을 받았을 때의 희열은 그 어떤 어려움도 잊게 할 만큼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비록 실제 수출 계약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바이어와 직접 소통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무역 실무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처음 접하는 해외 시장 조사는 낯설고 어려웠고,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팀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서로 도와가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길렀습니다. 특히, 중간 성과 발표회에서 제가 담당했던 해외 시장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긴장감에 떨리는 목소리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장, 그리고 미래를 향해

국제무역현장실무 수업은 무역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팀워크와 소통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좌절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과 도전 정신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무역이라는 분야가 더 이상 낯설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흥미와 호기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여 무역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수업에서 경험했던 팀워크,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은 앞으로 제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교통 시스템을 설계할 때, 도로, 신호, 차량, 사람들의 움직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처럼, 앞으로 제가 마주하게 될 다양한 문제들을 유연하게 해결하고, 사람들과 협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